

대림 제4주일

기도서 P. 220 A해

1독 (이 사 7, 10-14절)
 2독 (로 마 1, 1-7절)
 복음 (마 태 1, 18-24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1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강론



임 마 누 엘

범 석 규 신부

예수님께서 2천년 전 갈릴레아 나자렛에 살던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역사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많은 그리스찬마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알아 듣고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듯하여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강생 구속의 심오한 교리를 알아 듣고 믿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같이 있고저 하는 것이라고도 말하며, 그 사랑은 같이 있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자식들을 곁에 두고 항상 같이 있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만나고저 하며, 만나면 오랫동안 같이 있고저 합니다. 서로 헤어지기 섭섭해하는 그 마음 역시 사랑의 표현의 예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상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랑은 같이 있고저 하며 또한 같이 있을 수 있는 행동 방법을 찾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시기에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 중의 하나인 강생의 역사,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뜻과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저 하신 이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이 행복된 처지를 보존하는 길은 요한 1서 4장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알뜰한 신앙인이 됩니다.

(전주 교구청 사무처장 신부)



누구를 찾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 그분은 누구인가? 거리에는 벌써부터 캐럴과 카드가 춤을 추며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분은 탄생할 때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고”(루가 2, 7), 최후의 심판날 “임금님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마태오 25, 40)라고 또한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에게는 해방을 알려주며, 눈먼 사람들은 보게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루가 4, 18-19).

자, 이제 우리의 주님을 맞으러 가자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이리 이제민 집단 수용소인 소라산 천막촌에는 눈이 파란 외국인 수녀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그들은 이제민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의 난민들을 찾아다니며 돕고있다. 75세의 노파와 58세의 불구아들 단둘이 살고 있는 천막도 그들의 일터다. 결핵으로 고통받는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도 그들의 벗이다. 무신론자라도 좋고 불교도라도 좋다. 오직 어려운 처지에서 그들의 손길이 필요로 하기만 하면 모두가 그들의 형제인 것이다. 물도 길어주고 천막도 손질해주고 연탄 난로도 보살펴 준다. 물론 위로의 말도 잊지않고.

이 예수의 작은 자매들은 그들의 예수를 찾아낸 것이다. 우리도 이제, 먼저 마음으로라도 예수를 찾자. 조그마한 몸짓으로 예수를 찾아 나서자. 그래야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를 우리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숲 정 이 산책



내 정원을
 깨끗하게 할시다

성탄의 의의 (-인간회복-)

-사랑때문에 오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하느님과 하나된 인간.

-인권의 회복은 곧 신권<神權>의 회복.

김 수 환 추기경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의 범죄 때부터 이지러졌던 하느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소멸시키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안에서 인간 본성을 자동적으로 고상한 품위에까지 들어 올려졌다”(사복헌장 22).

하느님은 왜 이렇게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성경을 보면 이는 오로지 사랑에서였다. -“하느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 3, 16)

뿐만더 성삼위일체의 사랑의 친교(親交)를 인간에게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강생은 있었다. 하느님 아버지 와 아들이 성령과 더불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게끔 이 강생은 있었다 하느님의 나라란 바로 이와같은 하느님과의 일치 및 인간 상호간의 일치가 강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데 있다.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치셨다. 하느님은 진정 사랑을 시다(1 요한 4, 8). 그는 탕자까지도,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도 고마운 양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와도 같고(루가 15, 11이하),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와 같다(요한 10, 11).

하느님은 인간을 이렇듯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 인간의 고귀함, 인간 존엄성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결국 가난하

고 약한사람을 외면하고 학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학대하는 것이다(마태오 25, 31-46). 이렇듯 진정한 인권(人權)의 철회는 바로 신권(神權)의 철회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마태오 22, 21)라는 성경말씀이 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처럼 곡해한 적이 있으나,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예수님은 카이사르(황제)의 권리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또는 카이사르와 하느님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상에서 볼 때, 카이사르란 우상화된 정치권력자에겐 그의 우상을 찍은 돈, 즉 맘몬(mammon)밖에 돌려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 돌려드릴 것은 인간과 창조된 우주만물 전부다. 특히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인간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진리, 정의, 사랑, 자유 등 모든 가치와 모든 선과 아름다움이 다 하느님께 속한 것이요, 이를 인간에게 줌으로써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란 바로 이 신권(神權)의 회복이다. 이는 곧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 하느님의 자녀다운 자유의 회복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아울러 이웃사랑, 특히 불우한 이웃을 형제와 같이 내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면 곧 강생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경향잡지에서 옮김)

□ 상 식 □

판공성사(判工聖事)란?

판공(判工)이란 말은 신자생활인 교우들의 영신공부(靈神工夫)상태를 살피고 그 잘못을 가리는 심판신공(審判神工)의 준말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교회가 해마다 성탄과 부활 대축일을 전후해서 실시하는 이 「판공」에는 으레 히 찰고(察考)라는 전통어린 제도가 꼭 붙어 다닌다. 마치 세말의 준엄한 주님 심판을 방불케 미리 예행연습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신부(神父)는 판공이 시작되면 우선 이렇게 교우들의 신공(神工) 실태를 심사(참고)한다. 첫째, 하느님 생명의 말씀인 복음(성서)과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익히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둘째, 기도생활과 수제 준법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도들의 전교활동과 교회 유지 운영 참여도는 어떠한지를 살피고 지도 훈계한다.

그리고는 심사를 마친 사람들에게 사죄(赦罪)의 은총을 입게 하는 고백성사와 성체성사의 진비인 영성체(領聖體)의 특전을 누리게 한다. 또 그의 필요한 다른 성사(聖事)들도 받게 하고. 이것이 우리 성교회(聖教會) 교우의 「판공 성사」다.

아무튼 판공 성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갱신을 위한 반성과 다짐의 고마운 배려요 중요한 종교 행사다. 어렵게 짜면 좀 더 자주 있어야 할, 그러나 사정상 연중 단 2회 실시 하는 이 대 성사에 교우들은 모름지기 모두 빠짐 없이 참여하여 자신의 신익(神益)을 도모토록 해야겠다. 그리고 이 귀중한 성사를 서둘러 배우고 적당히 넘겨 버리려는 웅졸한 마음이나 아예 꺼려 기피해 버리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모두 더럽혀진 추매 걸레 씻고 향긋한 차림새로 오시는 하늘의 넘을 미쁘게 맞도록 주신 하시는 자모인 교회의 가르침에 적극 순응토록 작심(作心) 할 일이다. 구세주의 내림이 눈앞에 바짝 다가 섰으니... (김신부)

□ 직원모집 공고 □

1. 센터 상주자 35세 이상 55세 미만 남자
 2. 식당 카운터 30세 미만, 중졸이상의 여성으로 센터에서 상주 가능자(상업에 경험있는 분 환영)
 3. 가톨릭 시보 배달 직원 출퇴근 가능 함(학생환영)
- ◎제출서류...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본당신부추천서 각1통
◎모집기간...12월 20일 17시까지, 장소...전주 가톨릭 센터

□ 직원모집 공고 □

1. 교구청 사무원 여 ○명
2. 자격 22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여성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서 부기, 타자, 주산에 능한자
3.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4. 마감 24일 오후 5시까지
5. 선발일자 및 장소 12월 30일 오전 10시, 주교관

교형 자매 여러분

뜻깊은 성탄과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커대예 주님의 은총이 풍성
하시기를 빌며, 평소의 후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퇴욕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서로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며 결
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는 현재 경제적
난관에 봉착되어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볼 것 같으면, 계속되는 물가의 상승과 회계년도의 변경
에 따른 운영비의 증가에 반하여 봉헌금(교부금, 주일금)의 액수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잡 다난한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얽매어 애로와 불편이 헤아
릴 수 없으시리라 믿사오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현재의
사정을 충분히 양철하시고, 귀하께서 미납하신 1977년도 10. 11. 12월
분까지의 교무금을 성탄안에 완납하여 교회 유지와 선교를 통한 복음
화 사업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 12월 일

전주 중앙 천주교회

사도회장 이 부 석
주임신부 사 용 부 올림

(경) 사 제 서 품 (축)

모시는 글

“당신 백성 피우시는 주님이 아니신가!
 낮고 낮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꾸미시네”(시편 149).
 교구내 신부님, 수녀님, 교형 자매 여러분!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전주교구에서는 새 사제 다섯 분이 주님의 제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자리를 함께 하시어
 이들이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전 : 김재덕(아우구스티노)주교
 때 : 1977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곳 : 전주 중앙 천주 교회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새 사제 명단 및 첫미사 안내

성 명	출신본당	첫 미사
현유복(베네딕도)	서학동	12월 28일(수) 오전 11시, 서학동 천주교회
유중환(마태오)	김제	12월 28일(수) 오전 11시, 김제 천주교회
범영배(라파엘)	전동	12월 27일(화) 오후 5시, 전동 천주교회
정태현(갈리스도)	부안	12월 28일(수) 오전 11시, 부안 천주교회
조정오(요셉)	삼례	12월 28일(수) 오전 11시, 삼례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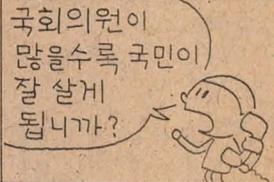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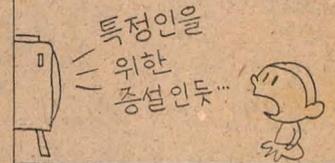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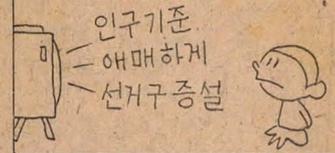
※ 부제품 수품자

김기수(요한, 둔율동) 전중복(요한, 웅안) 박병준(비리버, 장수)
 이상섭(모이세, 전동) 박성팔(안드레아, 함열) 김성진(토마스, 서학동)

※ 서임식...12월 18일(일) 오전 11시, 광주 대진 신학 대학에서
 주례 : 윤공희 대주교(광주 대교구장)

- 독서직 및 시종직...김희남(베드로, 중앙)
- 독서직...경규봉(가브리엘, 고산), 유영도(베네딕도, 중앙)
 최병용(토마스, 둔율동), 이성우(마티아, 장인동)

요심이 (229)



주산반 · 부기반 · 경리실무반

삼일주산경리학원

수시접수(국교, 중고등, 일반)

정진경 (분도)

☎ ① 4 6 2

병무청 ← 구법원 중건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송 원식씨 재 송홍식군
 탁 마리아씨 4녀 홍화숙(안젤라)양
 일시 : 77년 12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전동 천주교회
 주례 : 김 환 철(스테파노)신부

현대 칼라 특약점

태 양 사

김 스테파노 (종범)

- 특수 촬영 기술 무료로
 - 고급 카메라 대여, 수리전문
 - 회갑·결혼·야의 칼라사진출사
 - 각종 칼라 필름 판매
- 정음 소방서 앞 ☎ 5 4 0 4 번

난 방 시 설 은

한국 온수 온돌

이리 구시장 ☎ 4 9 4 0
 전주 최정식 ☎ ② 8 3 4 2
 군산 청파시장 ☎ 3 0 3 2

이전 개업 안내

표구, 병풍, 보료, 스킬

문 화 양 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송외과 맞은편 2 - 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사제 서품 및 서임 : 순정이 3면 참조

1. 교구 평협 정기총회(오늘 10시-오후 4시, 가톨릭 센터)
2. 국군 장병에게 따뜻한 형제애를 보임시다. 군중사제들을 기억합시다.
3. 순정이 대금이 너무나 밀려 있어 어려움이 큼니다. 서로 도움시다.
4. 제11차 남성 꾸르실료(78년 1월 2-5일, 가톨릭 센터, 회비 8,000원, 12월 25일까지 접수바람)
희망자는 분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성심여고내 꾸르실료 사무국으로 접수하세요.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19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6. 전공 545차 공개 썰(오늘 오전 10시반, 중앙성당 강당)

□ 방송안내...문화방송(MBC) 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서해방송(SBC) 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 18일 공식 미사후
2. 판공일정(오후 2-7시) : 금암·고사동-19일<월>, 서노·중노송동-20일<화>, 인후·경원동-21일<수>, 진북·태평동-22일<목>, 학생-23일<금>, 기타-24일<토>
3. 불우 이웃 돕기, 국군 장병 위문금 협조 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 78년 1월말까지 쉽니다
5. 성탄 대축일 미사안내 : 24일-자정미사(주교님 집전), 25일-오전 9시(학생), 오전 10시반(공식), 오후 7시반
6. J·O·C 주최 하루 찾집 : 24일 오후 7시부터, 강당
7. 호주는 사진촬영 바람(교적부 부책용)

□ 지난주 봉헌금 : 166,150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가톨릭 센터, 회비 500원
2. 새 영세자 면담(오늘 오후 2시반, 피점(23일 오후 2-4시), 영세식(어린이-24일 오후 3시, 어른-24일 오후 2시반)
3. 판공성사(오후 2시반-5시반·7시반-8시반) 중노 2가-19·20일, 중노 1가-21·22일
4. 성탄 행사 안내 : 오락(24일 밤 8시), 미사(24일 자정, 25일 오전 8시<아동>·10시<공식>, 오후 7시)
5. 신용 조합 월례회 : 오늘 저녁 7시반

□ 지난주 봉헌금 : 47,63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확대회의 : 공식 미사후, 각 반·구역·공소회장
2. 구역회장님은 성사표 받아가시오
3. 청년회 성가연습 : 19일부터 매일 밤 7시반
4. 학생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5. 판공일정 : 젊은이·학생·직장인-17·18일, 팔복·송천-19일, 덕진-20일, 금암-21일, 병자-22일, 누락자-23일

□ 지난주 봉헌금 : 42,85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영세식 : 24일 저녁 7시, 대부모 동반
2. 성탄피정 : 19-23일 매일 밤 미사후(아침미사 없음) 특별강론-범신부님 외 4분, 모두 참석합니다
3. 판공성사 : 직장인·학생-17·18일, 다가·중앙·화산동

-19일, 태평·고사·진북동-20일, 완산·효자동·기타-21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

4. 성탄 선물(의인을 인도하는 서약서에 대상자 기입)을 맡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예수께 바칩시다
5. 복자의 밤 : 24일 밤 8시반-11시, 연극·무용·음악 발표, 복권(1매 100원) 추첨, 학생회·주일학교 주최

□ 지난주 봉헌금 : 45,27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훈

1. 부녀회 : 10시 미사후
2. 판공일정 : 20일(1-4반), 21일, (5-8반), 21일(9-12반), 23일(13반, 기타반)
3. 성탄 영세식 : 23일 오후 2시, 대부모·안내자 참석 바람
4. 성탄 행사 안내 : 24일 밤-11시(무용·연극발표, 복권판매, 각반 노래·특기자랑)
5. 성탄 미사 : 24일 밤 12시, 25일 오전 10시·25일 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 39,875원

(순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누깁다 부녀회 묵상회 : 27·28일, 꼭 참석합니다
2. 축 영세식! 오늘 9시
3. 미납된 교무금(봉헌금) 완납 바랍니다
4. 중·고생 크리스마스 카드 전시회

□ 지난주 봉헌금 : 86,15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김윤성
사도 회장 유석종

1. 성탄 행사 안내 : 고백성사-완산동(월), 교동(화), 풍남·노송동(수), 전동·중앙·다가·경원동(목), 기타(금), 전야미사(24일 밤)-어린이(7시), 중·고생(10시), 성인(12시)
각 단체 행사-어린이 잔치(23일 밤 7시), 중·고생 발표회(24일 밤 7시반), 주일학교 교사(성야다실), 성화회(성야 철야)
2. 교미시움 : 오후 2시
3. 사도회 긴급회의 : 오늘 저녁 미사후, 각 단체 상황·계획보고
4. 성가정회 : <월> 오후 2시
5. 성탄전에 교무금, 새성당 헌금 완납바랍니다
6. 전화 번호부 제작, 개인(자택, 회사, 직장)번호 보고바람
7. 매일 축일표 사무실에서 분배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36,160원